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440호 (2023-8)
발행일 2023. 9. 04.
ISSN 2092-7117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 044)287-8000 F 044)287-8052

2010년대 장애인 빈곤율 추이와 영향 요인¹⁾

이원진

빈곤불평등연구실 부연구위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대의 장애인 빈곤율 추이와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2012~2016년(조사 데이터) 47.0%에서 43.0%로, 2016~2020년(행정 보완 데이터) 40.7%에서 39.6%로 감소하였음.
- 꾸준한 공적이전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빠르게 감소하지 못한 것은 장애인 시장소득 빈곤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심층 분석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비장애 근로연령대 가구원과의 동거 감소 등과 같은 장애인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장애인의 시장소득 빈곤율을 증가시켰음.

01. 분석 목적 및 방법

◆ 장애인 빈곤율 추이 분석의 필요성

- 장애인 소득·빈곤의 횡단적 구조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정보가 알려져 있음.
 -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은 소득 수준이 낮고 불평등 및 빈곤 수준이 높음.
 - 주로 경제활동, 소득보장제도 같은 요인이 장애인의 소득·빈곤에 영향을 미침.
- 하지만 장애인 소득·빈곤의 시계열적 변화에 대한 분석은 불충분함.
 - 김태완(2010), 조윤화(2014), 김지훈, 강욱모, 염동문(2016), 오욱찬, 김수진, 김현경, 이원진, 오다은(2020) 등 소수의 선행연구는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빈곤 추이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대체로 소득분배 추이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그쳤음.

1) 이 글은 다음 보고서 제3장의 일부를 발췌·요약한 것임. 오욱찬, 이원진, 엄다원. (2022). 장애인 소득분배 변화의 원인과 소득보장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 글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대의 장애인 빈곤율 추이와 영향 요인을 분석함.

◆ 분석 방법

- 2012~2020년(소득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함.²⁾
 - 행정 자료 보완으로 인한 시계열 단절을 고려하여, 2012~2016년 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와 2016~2020년 행정 보완 데이터 분석 결과를 구분하여 보고함.³⁾
- 소득은 <표 1>과 같이 정의함.
 - 가구 내에서 소득을 합산하고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함.
 - 균등화 가구소득을 활용하여 개인 단위 소득·빈곤율 분포를 분석함.⁴⁾
 -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 단위 중위값의 50%로 설정함.

〈표 1〉 소득 정의

근로소득	노동소득	일차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가구 간 이전소득, 비영리단체로부터의 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 가구 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지출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아동 관련 급여, 장애 관련 급여, 기초보장급여, 근로자녀장려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 공적이전지출: 세금, 사회보험료				

자료: 이원진, 김현경, 함선우, 성재민, 하은솔, 한겨레. (2022). 소득분배 변화와 원인 분석 연구. p. 31. <표 1-1>의 '취업소득'을 '노동소득'으로 수정하여 인용하였음.

02. 장애인 소득·빈곤율 추이

◆ 장애인의 소득 평균 및 빈곤율 추이

- 장애인의 2020년 가처분소득 평균은 연간 2,437만 원으로 비장애인의 가처분소득 평균인 연간 3,490만 원의 약 70% 수준임.
 -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많은 공적·사적이전소득을 받았지만, 노동시장에서 획득한 노동소득이 훨씬 적었기 때문에 가처분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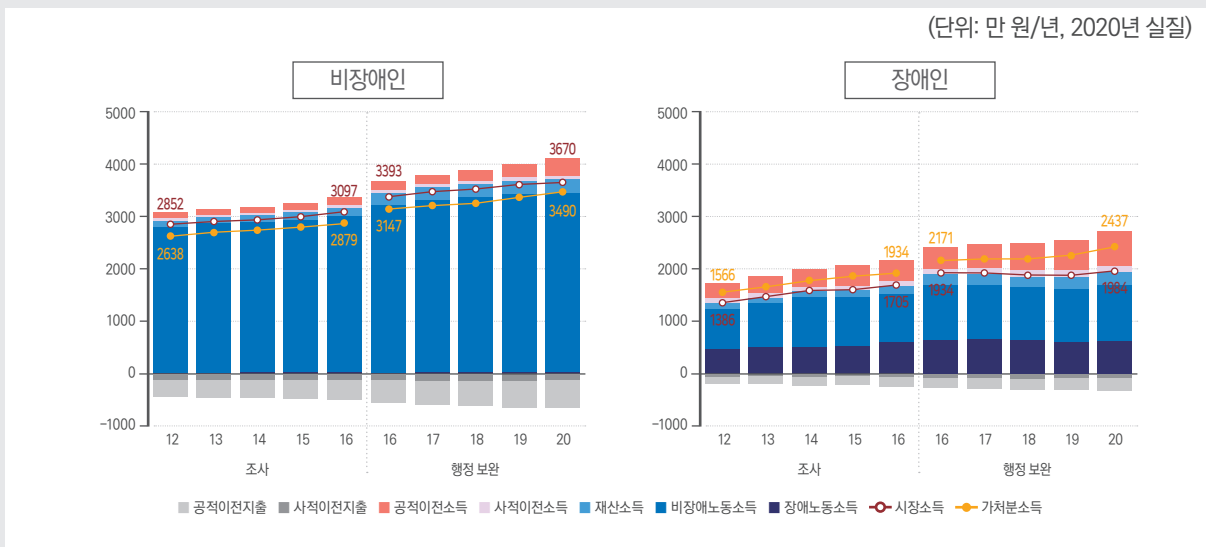
2)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 사례 수는 연도별로 전체 인구 4만 4,034~5만 3,709명, 장애인 1,889~2,281명임.

3) 조사 데이터는 설문조사로 조사한 소득 데이터를 의미하고, 행정 보완 데이터는 설문조사로 조사한 소득 데이터를 국제청, 보건복지부, 각 연금공단 등의 행정 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한 소득 데이터를 의미함.

4) 빈곤 장애인은 가구 내에서 합산하고 균등화한 가구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속한 장애인을 의미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거하는 가구의 경우, 장애 가구원이 획득한 소득과 비장애 가구원이 획득한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소득을 구성하고 해당 가구에 속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빈곤 지위를 동일하게 결정함. 이 글의 분석에서 장애인 소득·빈곤은 장애인 개인의 소득·빈곤율, 비장애인 소득·빈곤은 비장애인 개인의 소득·빈곤율을 의미함.

- 장애인의 공적이전소득은 시간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장애인의 시장소득은 대체로 정체하였음.
- 비장애 가구원의 노동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장애인의 빈곤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였음.
 - 노동시장에서 직접 획득한 소득으로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2020년 약 15%에 불과함.
- 장애인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2012~2016년(조사 데이터) 53.5%에서 50.5%로 감소하였지만, 2016~2020년(행정 보완 데이터) 48.7%에서 54.7%로 증가하였음.
 - 장애인 시장소득 빈곤율 추이는 대체로 노동소득 빈곤율 추이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장애인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2012~2016년(조사 데이터) 47.0%에서 43.0%로, 2016~2020년(행정 보완 데이터) 40.7%에서 39.6%로 감소하였음.
 - 2016년 이후 장애인 시장소득 빈곤율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증가하지 않은 데는 공적이전 확대가 주된 영향을 미쳤음.
 - 가처분소득 빈곤율과 시장소득 빈곤율의 차이, 즉 순 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2016년 8.0%포인트에서 2020년 15.1%포인트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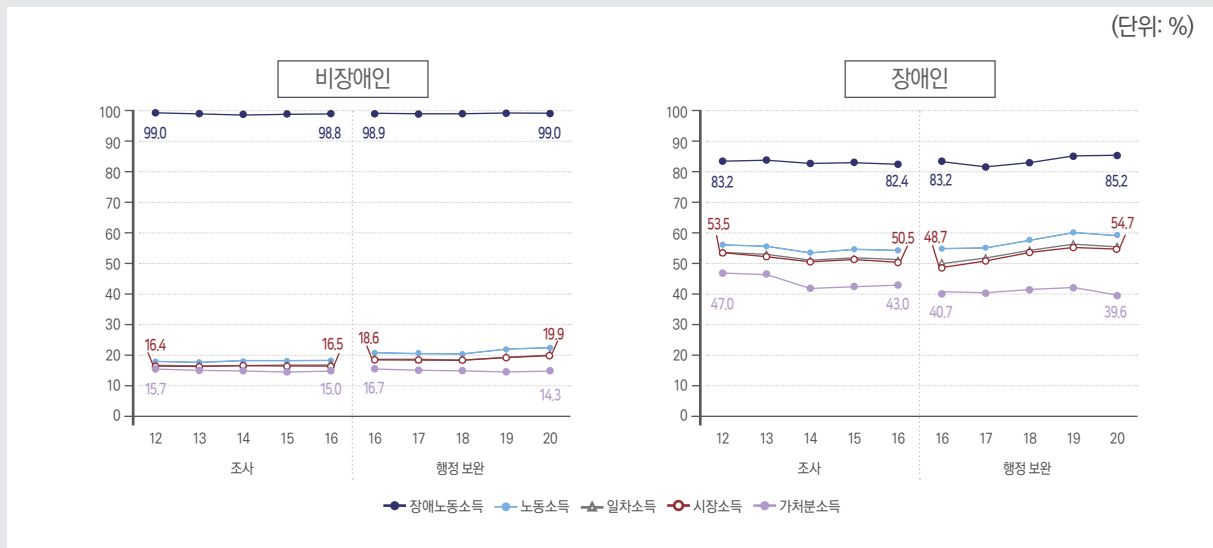
[그림 1] 2012~2020년 비장애인 및 장애인의 소득원천·시장소득·가처분소득 평균



주: 균등화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임. 장애노동소득은 장애 가구원의 노동소득을, 비장애노동소득은 비장애 가구원의 노동소득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10.23333/R.930001.001

[그림 2] 2012~2020년 비장애인 및 장애인의 노동소득·일차소득·시장소득·가처분소득 빈곤율



주: 균등화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임. 장애노동소득은 장애 가구원의 노동소득을 의미함.⁵⁾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10.23333/R.930001.001

03. 장애인 빈곤율 추이의 영향 요인

◆ 장애인 빈곤율 추이의 영향 요인 분석 방법

- 시간에 따른 장애인의 성·연령, 가구 유형, 고용률 변화가 장애인 빈곤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다음과 같이 재가중 방법(reweighting method)을 활용하여 빈곤율 추이의 영향 요인을 분석함.
 - 2013~2020년 장애인 표본을 재가중하여 장애인의 성·연령, 가구 유형, 취업 상태를 2012년과 유사하게 조정 한 후, 재가중 전후 장애인 빈곤율 변화를 장애인 특성 변화가 빈곤율에 미친 영향으로 해석함.
 - $T=t$ 장애인 표본의 $G=g$ 집단 비율을 $T=1$ 장애인 표본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재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음(이원진 외, 2021, p. 181).⁶⁾

$$\psi_{G=g} = \Pr_{G=g}^{T=1} \div \Pr_{G=g}^{T=t}$$

$\Pr_{G=g}^{T=t}$: $T=t$ 표본의 g 번째 범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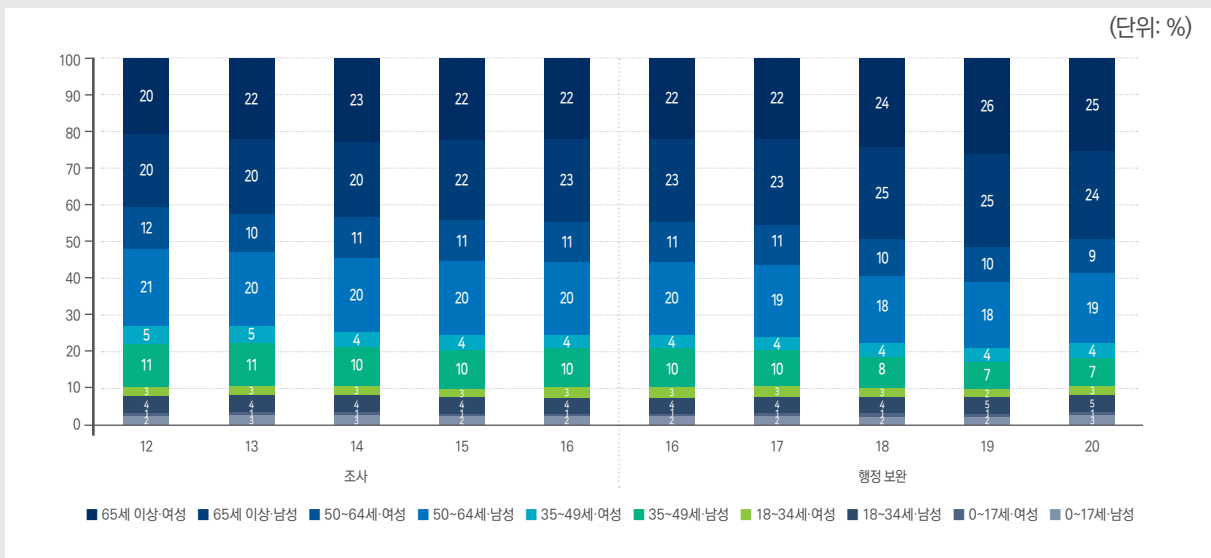
5) 비장애인의 장애노동소득 빈곤율이 약 99%라는 분석 결과는 전체 비장애인 중 가구 내에서 장애 가구원이 획득한 노동소득만으로 빈곤선 이상의 가구소득을 확보한 비율이 약 1%임을 의미함.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장애노동소득 빈곤율이 약 82~85%라는 분석 결과는 전체 장애인 중 가구 내에서 장애 가구원이 획득한 노동소득만으로 빈곤선 이상의 가구소득을 확보한 비율이 약 15~18%임을 의미함.

6) T 는 시점 변수, t 는 시점 변수의 값, G 는 집단 변수, g 는 집단 변수의 값을 의미함.

◆ 장애인 성·연령 변화의 영향

- [그림 3]은 대체로 2010년대에 장애인의 고령화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 줌.
 - 장애인 중 여성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20%에서 2019년 26%로, 남성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20%에서 2019년 25%로 증가하였음.⁷⁾
- 비노인 장애인에 비해 노인 장애인의 빈곤율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장애인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장애인 고령화는 장애인의 빈곤율을 증가시켰음(그림 4).
 - 예를 들어, 2020년 실제 장애인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54.7%이지만, 2020년 장애인의 성·연령 분포가 2012년과 동일했다더라면 시장소득 빈곤율이 52.4%로 관찰되었을 것임.
 - 따라서 2012~2020년 장애인의 성·연령 변화로 2020년 장애인의 시장소득 빈곤율이 2.3%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2012~2020년 장애인의 성·연령 변화로 2020년 장애인의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각각 2.3%포인트 늘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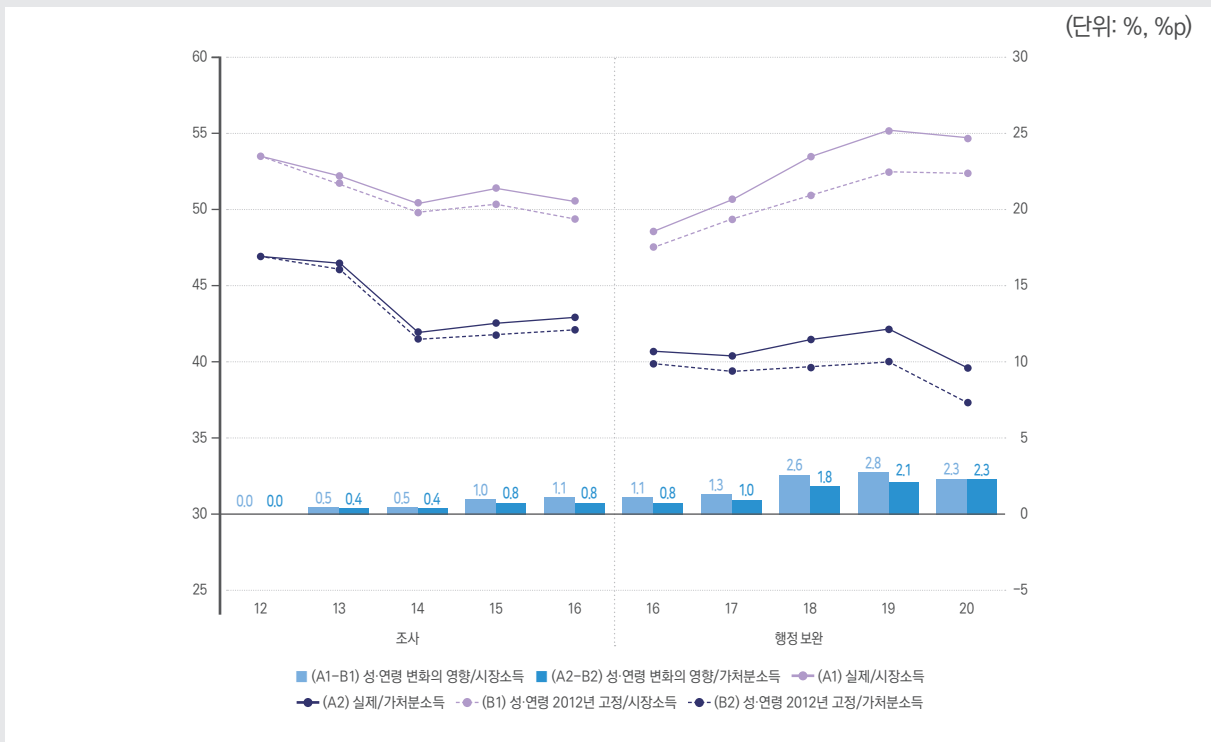
[그림 3] 2012~2020년 장애인 성·연령 분포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10.23333/R.930001.001

7) 단, 2020년에는 노인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음. 통계청 장애인현황 통계(통계청, 2022)에 따르면 2020년 이후에도 장애인의 고령화가 꾸준히 진행되었으므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장애인 표본의 대표성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그림 4] 2012~2020년 장애인의 성·연령 변화에 따른 장애인 시장소득·가처분소득 빈곤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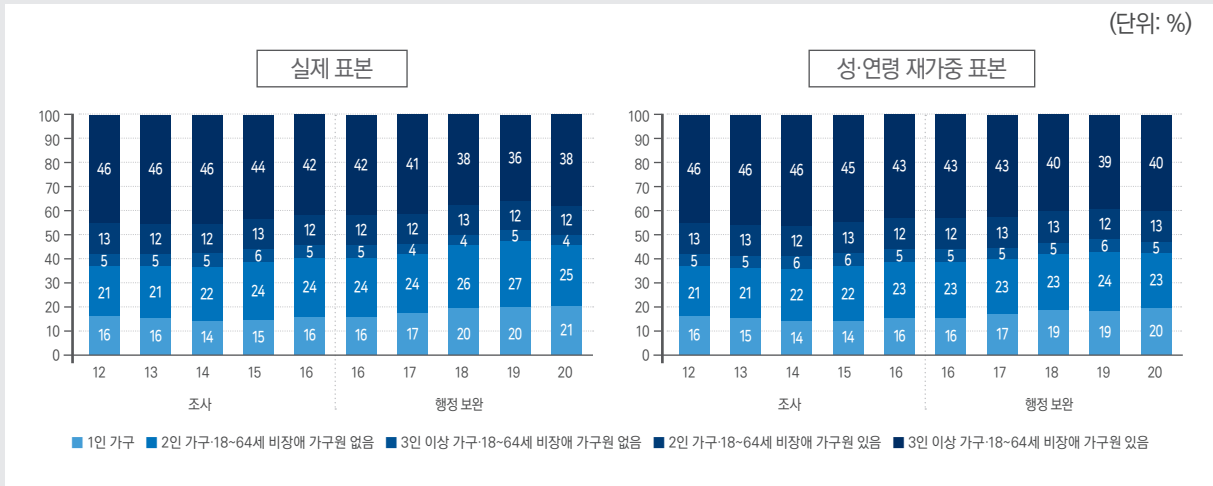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10.23333/R.930001.001

◆ 장애인 가구 유형 변화의 영향⁸⁾

- [그림 5]는 18~64세 비장애 가구원이 있는 3인 이상 가구의 비율이 감소했음을 뚜렷하게 보여 줌.
 - 2012~2020년 장애인의 1인 가구 비율은 16%에서 21%로 증가하였고, 18~64세 비장애 가구원이 없는 2인 가구 비율은 21%에서 25%로 증가하였으며, 18~64세 비장애 가구원이 있는 3인 이상 가구 비율은 46%에서 38%로 감소하였음.
 - 2012~2020년 장애인의 성·연령 분포를 2012년과 동일하게 고정하면 가구 유형 변화의 강도가 다소 약해지지만, 18~64세 비장애 가구원이 있는 3인 이상 가구의 비율이 감소한 변화 양상은 여전히 뚜렷하게 관찰됨.

8) 장애인의 가구 유형 변화에는 장애인의 성·연령 변화가 영향을 미침. 예를 들어, 비노인 장애인보다 노인 장애인이 홀로 생활할 가능성이 크다면, 장애인의 고령화가 장애인 1인 가구 비율을 증가시킬 것임. 이를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장애인의 성·연령 변화를 통제된 상태에서 장애인의 가구 유형 변화가 장애인 빈곤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이를 위해, 장애인 가구 유형 변화의 영향을 분석할 때 성·연령을 고정한 재가중 표본과 성·연령 및 가구 유형을 모두 고정한 재가중 표본을 비교함. 후술할 고용률 분석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성·연령 변화를 통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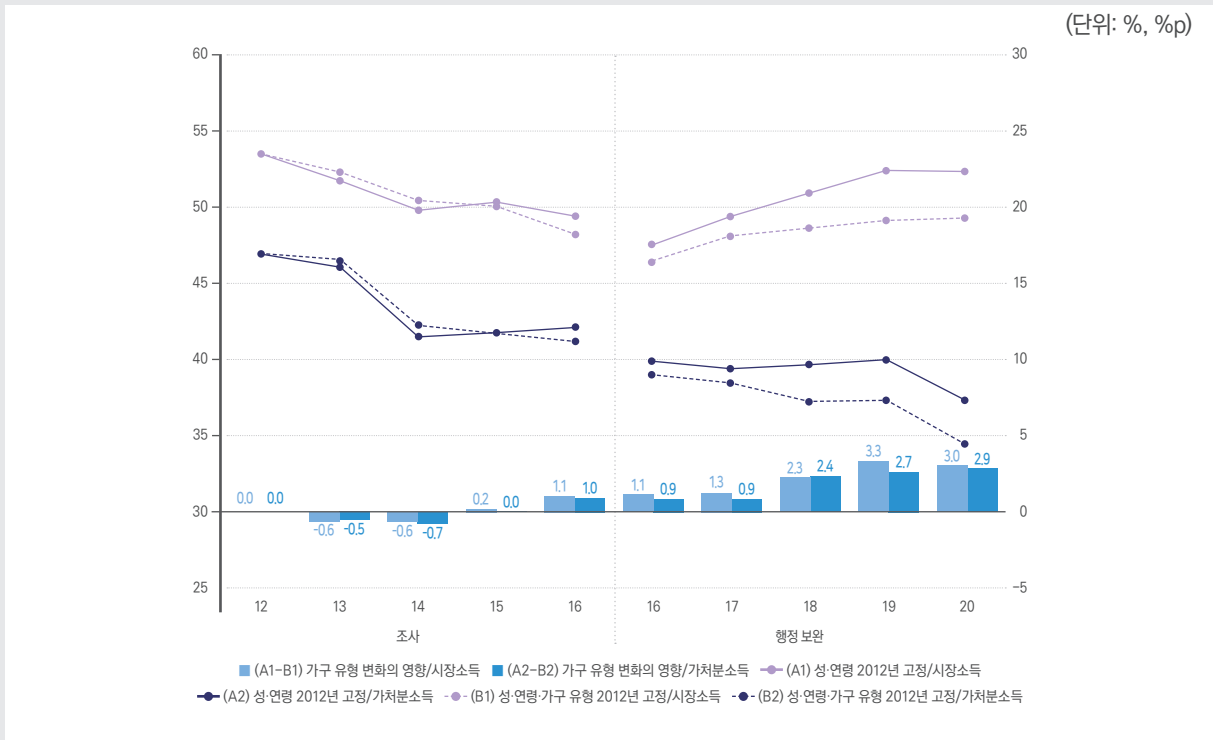
[그림 5] 2012~2020년 장애인 가구 유형 분포



주: 성·연령 재가중 표본은 성·연령 분포를 2012년과 동일하게 고정한 표본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10.23333/R.930001.001

[그림 6] 2012~2020년 장애인의 가구 유형 변화에 따른 장애인 시장소득·가처분소득 빈곤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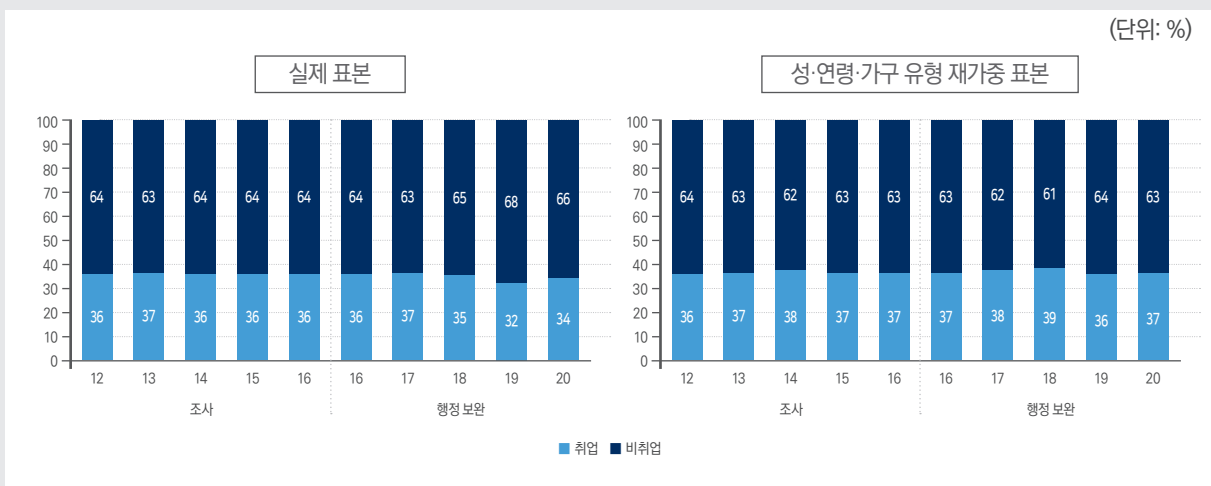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10.23333/R.930001.001

- 장애인 중에서 18~64세 비장애 가구원이 있는 3인 이상 가구의 빈곤율 수준이 훨씬 낮기 때문에 [그림 6]과 같이 18~64세 비장애 가구원이 있는 3인 이상 가구 비율 감소 등과 같은 장애인의 가구 유형 변화는 장애인의 빈곤율을 증가시켰음.
 - 장애인의 성·연령을 2012년과 동일하게 고정했을 때 2020년 시장소득 빈곤율은 52.4%이고, 장애인의 성·연령×가구 유형을 2012년과 동일하게 고정했을 때 2020년 시장소득 빈곤율은 49.3%임.
 - 따라서 2012~2020년 장애인의 성·연령 집단 내 가구 유형 분포 변화에 따라 2020년 장애인의 시장소득 빈곤율이 49.3%에서 52.4%로 3.0%포인트⁹⁾ 늘어난 것으로 해석됨.
 - 또한 2012~2020년 장애인의 가구 유형 변화로 2020년 장애인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2.9%포인트 늘어난.

◆ 장애인 고용률 변화의 영향

- [그림 7]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용률은 2012년 36%에서 2020년 34%로 감소하였음.
 - 단, 이와 같은 장애인 고용률 감소에는 장애인의 고령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임.
 - 장애인의 성·연령×가구 유형을 2012년과 동일하게 고정하면 장애인의 고용률이 2012년 36%에서 2020년 37%로 소폭 증가함.

[그림 7] 2012~2020년 장애인 고용률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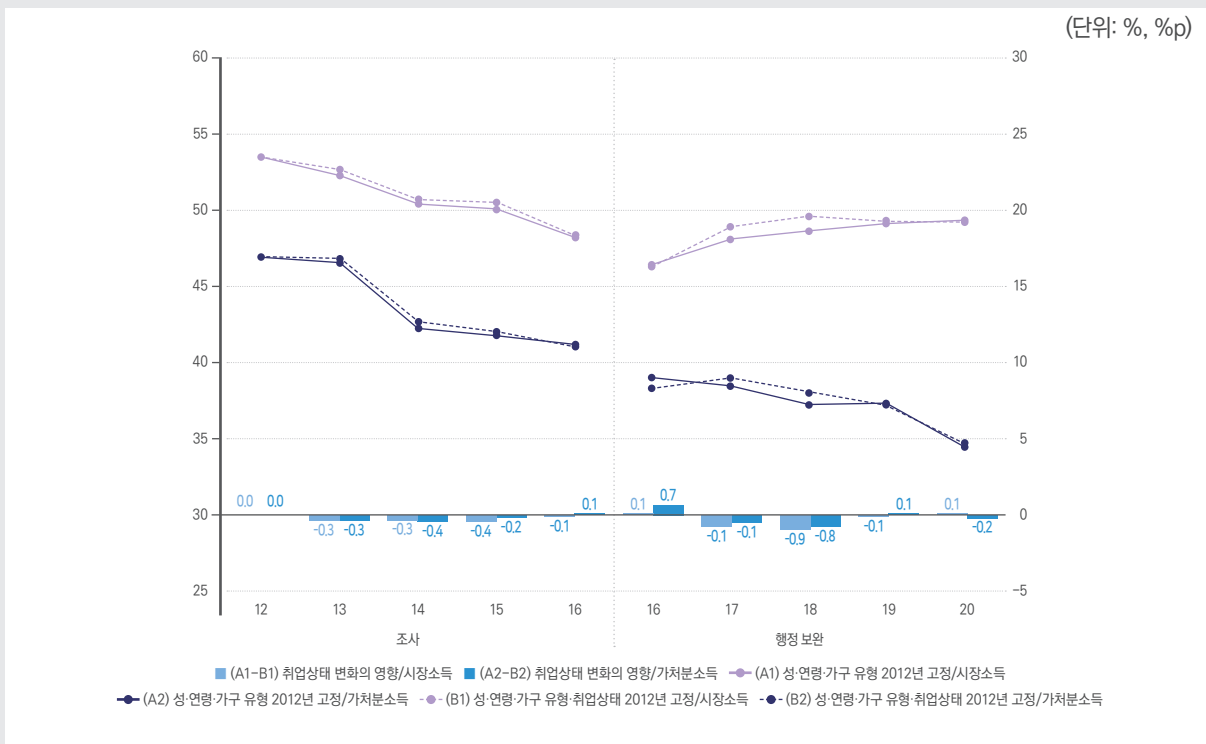
주: 성·연령×가구 유형 재가중 표본은 성·연령×가구 유형 분포를 2012년과 동일하게 고정한 표본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10.23333/R.930001.001

9) 3.1%포인트(=52.4-49.3)가 아닌 이유는 반올림 때문임.

- [그림 8]에서 보듯이 장애인 고용률 변화는 장애인 빈곤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취업 장애인의 빈곤율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성·연령×가구 유형을 통제했을 때 장애인 고용률 증가는 장애인 빈곤율을 감소시켰음.
 - 하지만 전반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의 증감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2017~2018년을 제외하면 장애인 취업 상태 변화가 장애인 빈곤율에 미친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

[그림 8] 2012~2020년 장애인의 고용률 변화에 따른 장애인 시장소득·가처분소득 빈곤율 변화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10.23333/R.930001.001

04. 시사점

◆ 장애인 빈곤율 추이 분석의 시사점

-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 노인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 조합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의 고령화가 장애인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서는 노인 장애인의 가처분소득 빈곤율 수준을 크게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노후소득보장제도 재편 논의에서는 노동 이력이 짧고 불안정하며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장애인의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연금-기초연금-국민연금의 관계 설정 등 최근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재편 논의와 결합하여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조합을 고민해 나가야 함.
- 장애인의 가구 구조 변화가 장애인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억제해야 함.
 - 장애인의 고령화를 통제하더라도 1인 가구 증가, 비장애 근로연령대 가구원과의 동거 감소 등 장애인의 가구 구조가 장애인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장애인이 시설이나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활동 지원, 이동, 의료, 주거 등과 관련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고용 및 소득 분야의 지원을 확대해야 함.
- 장애인 경제활동의 양과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고용 지원 정책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지만, 장애인 고용률을 뚜렷하게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 경제활동의 양과 질이 개선되면 장애인의 노동소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같이 고용과 연계된 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률과 가입 기간을 증가시켜 노령연금의 수급률과 급여 수준을 높일 수 있음.

〈참고문헌〉

- 김지훈, 강욱모, 염동문. (2016). 장애인가구의 소득불평등 추이와 요인분해: 집단구성별 비교. 사회복지정책, 43(1), 1-26.
- 김태완. (2010). 우리나라 장애인의 빈곤과 불평등실태. 보건복지포럼, 2010년 6월호, 20-29.
- 보건복지부. (2010~2022).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오욱찬, 김수진, 김현경, 이원진, 오다은. (2020).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욱찬, 이원진, 엄다원. (2022). 장애인 소득분배 변화의 원인과 소득보장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원진, 김현경, 함선유, 성재민, 하은솔, 한겨레. (2022). 소득분배 변화와 원인 분석 연구. 서울, 세종: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원진, 김현경, 함선유, 하은솔. (2021). 한국 소득분배 추이와 영향요인.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윤화. (2014).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소득불평등 수준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장애인복지학, 25, 5-32.
- 통계청. (2022). 장애인현황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2. 5. 20. 인출.
-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10.23333/R.930001.001

집필 이원진(빈곤불평등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의: 044-287-8401